

사회

승강기 같히고 업무 마비 대낮 대혼란

■ 9월 폭염 '정전대란' 광주·전남 아우성

백화점·상점 등 이용객 불안 떨어

15일 오후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엘리베이터 갇힌 신고가 잇따르고, 공공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또 백화점과 상점, 병·의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언론사와 같은 중요시설에도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엘리베이터 구조 신고 '빗발' = 광주소방본부와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상당수 지역에 전력 공급이 중단된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는 신고가 100건이 넘었다.

각 소방서 구조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 정전으로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시민들을 구조했다.

또 한 때 휴대전화와 전화 등 통신수단까지 장애를 일으키면서 구조대가 신고 지점 파악에 애를 먹거나 구조가 다소 지체되기도 했다.

◇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 업무 차질 = 정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것은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였다. 광주남부경찰서와 남구청, 북구청 등 공공기관에도 이날 오후 4시를 전후해 20~30분 가량 정전이 발생했다.

경찰서에서는 상황실과 각 사무실 등에 설치된 컴퓨터와 스크린 등에 정전 공급이 중단되면서 한때 비상이 걸렸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들은 갑작스런 정전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구청 직원을 역시 사무실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서 업무가 한동안 마비됐다. 또 선풍기 등 방방시설도 작동을 멈춰 더위에 시달려야 했다.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에 온 민원인들도 시간을 허비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대중이용시설 불면 = 백화점과 병원 등에서도 갑작스런 정전에 놀란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광주 한 백화점의 경우 갑작스럽게 매장 조명이 꺼지고,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멈추면서 수백명 이상의 이용객이 불안에 떨어다.

자가발전시설을 갖춘 대형병원과 달리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원에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환자 진료와 치료가 지연됐다.

특히 한때 광주지역 교차로 곳곳에 설치된 수백개의 신호등도 작동하지 않거나 점멸신호로 바뀌면서 교통사고 우려가 계속됐다. 운전자들은 예고 없는 정전에 영문을 모른 채 도로 위에서 혼란을 느꼈다.

이와 함께 전남대는 정전을 감안, 대입 수시모집 마감을 15일에서 하루 연기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전국적으로 정전사태가 발생한 15일 오후 119구조대원들이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왼쪽) 전원이 끊겨 계기판이 먹통이 돼 멈춰선 남구 주월동 한 주유소의 주유기.



전원 끊겨 계기판이 먹통이 돼 멈춰선 남구 주월동 한 주유소의 주유기.

'중요시설 전력 차단 제의'

감사원 지적 불구 이행안돼

15일 전국적으로 정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중요시설은 전력 차단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한전에 통보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와 구청, 언론사 등 중요시설까지 전력 공급이 중단돼 '불편'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초 발표한 '전력공급시설 확충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수급 비상시에도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에 위해 필요한 중요시설은 전력차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세워 놓고도 실제로는 이를 시설에 전력이 차단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비상시에도 중요시설의 전력은 차단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한전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날 광주남부경찰서와 남구청 등 광주지역 중요시설에도 정전이 발생, 한전이 감사원의 지적에 즉각 대응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사건임을 전제하며 "아직까지 (정전이 된) 정확한 경위가 파악되지 않았다. 해당 기관들은 비상시 차단되는 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396) 김종두



만삭 아내 살해 혐의 의사 남편 징역 20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15일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은 아내의 목을 졸라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해 비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태아에 대한 애도를 잊고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1월14일 새벽 3시55분에서 6시41분 사이에 서울 마포구 대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둥이 박씨의 목을 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은 아내의 목을 졸라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해 비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태아에 대한 애도를 잊고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1월14일 새벽 3시55분에서 6시41분 사이에 서울 마포구 대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둥이 박씨의 목을 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전국 건축자재 수역 휴친 일당 검거

○군산경찰은 15일 광주 등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며 전선, 스프링클러, 고가 건설 장비 등 건축자재를 휴친 혐의(특수 절도)로 최대(4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건축자재를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장물업자 김모(5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

○이들은 지난달 11월경 인천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전선과 스프링클러 등 25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휴친 혐의.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까지 광주와 서울, 인천, 부산, 창원 등 전국의 신축공사현장을 돌며 29차례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휴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인터넷을 통해 분양하거나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의 정보를 수집한 뒤 신축공사현장의 경비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

/전북취재본부 = 박승익기자 nogusu@

광주 성매매업소 증가 불구 단속 미미

상무 228개 최다·첨단·금호·용봉 順

광주 지역에서 성매매업소는 최근 수년 사이가 매년 10% 가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속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성매매 피해상담소 '언니네'에 따르면 광주의 유흥업소 밀집지역 4곳(상무·금호·용봉·첨단지구)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월 현재 등록된 업소는 482개로 집계됐다. 유흥주점·단란주점·안마시술소·

이용원 등의 성매매업소는 상무지구 가 228개로 가장 많았고 첨단 166개·금호 57개·용봉 31개 등이었다. 상무는 195개(2009년)→225개(2010년)→228개(2011년), 첨단은 145개→160개→166개, 금호는 35개·57개·57개, 용봉은 11개→23개→31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흥주점이 321개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 105개, 이용원 46개, 안마시

술소 10개 등이었다. '언니네'의 조사 결과 키스방, 페티쉬클럽, 휴게텔 등 유사성매매 업소도 13개였다. 이 가운데 올해 1~8월 서류 미비나 시설물 보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66개였지만, 성매매 알선으로 처분을 받은 업소는 6개에 불과했다.

언니네는 16일 오후 광주영성복합문화관에 성매매방지법 7주년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성매매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주요사건 처리 시민에 맡긴다"

광주지검, 3기 검찰시민위원 발족

광주지검(검사장 주철현)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을 배제한 점이 특징이다.

1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5층 브리핑실에서 제3기 검찰시민위원 18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검찰시민위원들은 의료계·교육계·노동계·언론계·사회복지종사자·운수업 종사자 등이다. 위원장은 강정재 전 전남대 총장이 맡게 됐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가 각각 6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5명, 30대 1명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앞으로 공소제기·불기소처분·구속취소·구속영장 재청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의 심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 심의·의결한 후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게 된다.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은 9명의 검찰시민위원 중 9명 전원이 출석해 합당 여부를 가리게 된다. 또 구속취소



15일 주철현(오른쪽) 광주지검장이 강정재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지검 제공>

나 구속영장 재청구는 9명 이상 출석에 의결하게 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1·2기 검찰시민위원회와는 달리 9명씩 참여해 매주 한 차례씩 열 계획이다.

강찬우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일반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현역 군인이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사건의 용의자가 직업군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동부경찰은 15일 이 사건 용의자가 육군 31사단 소속 K(35)씨와

J(35)씨인 것으로 확인돼 군 헌병대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K씨 등은 지난달 29일에서 지난 2일 사이 3차례에 걸쳐 광주시내 PC방

에서 조선대 모 교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조선대 포털사이트 등에 접속,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선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력후보의 핵심 선거 참모로 알려져 해킹과 선거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렸다. /김호기자 kimho@

빈집털이범에 1kg 골드바 2개도 털려

(개당 7000만원)

추석 연휴에 광주지역 아파트에서 빈집털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광주일보 9월15일 6면)한 가운데 피해품에 고가의 골드바(Gold Bar)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1일부터 13일 사이 광주시 남구 A아파트 등 2곳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 4건의 빈집털이 사건으로 1kg 짜리 골드바 2개 등 귀금속과 현금 등이 도

난당했다. 개당 가격이 이날 현재 7000만원 상당인 골드바는 A아파트에 거주하는 전남지역 모 병원장 B씨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서 "금문방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주고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최근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일명 '테크'를 위해 거액을 주고 골드바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테크는 값이 쌀 때 금을 사들여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추석 연휴 광주 남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재테크를 본 따 만들어진 신조어다.

경찰 관계자는 "골드바가 도난당한 했지만 금문방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어 실제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광주와 전남지역 아파트 곳곳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빈집털이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0월 4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과·합격]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검찰직 영·소·정(전문)

한빛고시학원

전문부서관 9급 아간반 농림직/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명품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